

“

### 7.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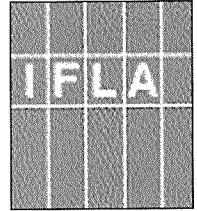
(과학·기술도서관 분과)

### 8. Public Libraries Section (공공도서관 분과)

### 9. 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Section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이들을 위한 분과)

”



지금까지 1호에 3개 분과씩, 두 개 호에 걸쳐 IFLA의 6개 분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였다. 어떤 분과는 그 이름만 보더라도 어떤 분야를 담당하는 지 느낌이 바로 오는데 반하여 어떤 분과는 도대체 왜 필요하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모든 궁금증은 무지의 소치이다.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이번 호에서는 과학·기술도서관 분과(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Section), 공공도서관 분과(Public Libraries Section),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이들을 위한 분과(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Section)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겠다.

#### 7. 과학·기술도서관 분과(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Section)

과학·기술도서관 분과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한 전자정보의 교환을 통해 전문적, 학문적 커뮤니케이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각국의 국립도서관 및 국제 과학·기술도서관 협회와 협력하고 있다. 이 분과의 주된 목표는 과학·기술도서관 분야의 범세계적 인식 확립과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 속에는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지원은 물론 정보 자원 공유 및 도서관 관련 전문직의 양성 등이 포함된다.

현재 과학·기술도서관 분과에서는 국립도서관, 대학도서관, 폴리테크닉(Polytechnic) 도서관, 공공도서관, 정부 연구도서관 등의 전문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분과에서는 이상에 언급된 도서관의 과학분야 사서 및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내고 이를 원활히 이용하고 공유하도록 하는 능력개발 및 훈련 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과학·기술도서관 분과에서의 컴퓨터 네트워크 이용은 분명 전문적이고 학술적 분야에서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부 분야에서는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이 미비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어 이를 참고하는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였다.

이제 그 컴퓨터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라는 매개를 통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다. 그 말단부에 가득 축적된 오염된 정보들은 유용한 정보들 간의 연결고리를 파손시키고,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분명 바로잡아야 할 일이며, 우리들(도서관계 종사자)

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지만 아직 그럴만한 힘도, 명분도, 수단도 부족하다. 이런 아쉬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제 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자기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Section : <http://ifla.org/VII/s9/index.htm>
-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 <http://ndsl.or.kr/eng/newindex.html>
- ScienceDirect : <http://www.sciencedirect.com/>
-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 (ISI) : <http://www.isinet.com/>
- Delphion US Patents : <http://www.delphion.com/>
- The EDP Sciences (Les Editions de Physique) : <http://www.edpsciences.com/uk/index.php>

**8. 공공도서관 분과(Public Libraries Section)**

공공도서관이라는 단어는 우리들 귀에 무척이나 친숙하게 다가온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많은 분들이 공공도서관 분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기도 전에 대충 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이다.

공공도서관 분과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사회 구성원이 모든 정보에 자유롭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공도서관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인 포럼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공공도서관으로서 보다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UNESCO와 IFLA는 1994년 공공도서관 선언문을 공포한 바 있으며, 2001년도에 공공도서관 분과에서는 4년여의 작업 끝에 다국어로 된 공공도서관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유럽 각국의 공공도서관들의 활동을 정리해 소개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공공도서관 분과(Public Libraries Section) : <http://ifla.org/VII/s8/index.htm>
- Public Library Guidelines : <http://ifla.org/VII/s8/news/pg01.htm>
- IFLA/UNESCO Public Library Manifesto : <http://ifla.org/VII/s8/unesco/manif.htm>
- The role of Public Libraries in lifelong learning: a Project under the section of Public Libraries, IFLA. : <http://ifla.org/VII/s8/proj/rolepublib.htm>
- Public Library Acts : <http://ifla.org/V/cdoc/acts.htm>

**9.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이들을 위한 분과(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Section)**

도서관 이용이 제한된 이들을 위한 분과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있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대상에 속하는 이용자들은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수감 중인 죄수, 입원 중인 환자, 요양 중인 노인 등도 포함된다.

이 분과에서는 도서관 및 정보 이용에 불편이 있는 모든 이들이 보다 쉽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각 도서관들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국제 포럼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현 사회에서, 수형자를 격려수용하고 교화 교육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기능을 하는 교도소가 교화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도소도서관의 활용에 관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교도소의 기본목적인 수형자의 교화교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도소도서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병원도서관과 같은 경우는 과거 직원들에게만 공개되거나, 구색을 맞추기 위한 도서들을 구비했던 것에서 벗어나 환자들과 보호자들의 이용 욕구는 물론 직원들이 전문적인 정보까지 찾아볼 수 있도록 점차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죄수나 환자도 도서관 이용에 큰 불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이들은 바로 장애인들이다. 비단 도서관 이용 뿐 아니라 사회적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이들이다. 어쩌면 장애인은 생각도, 움직임도 일반인에 비해 부족하다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새 우리 주위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등 장애인 시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을 위한 배려는 아직도 부족하기만 하다. 분명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점이 모자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만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그들도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하고, 궁금해 한다는 것을.

참고자료

- Libraries Serving Disadvantaged Persons Section : <http://ifla.org/VII/s9/index.htm>
-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 감사 결과(감사원, 2004. 7. 28) : [http://www.bai.go.kr/files/P03B03\\_20040728\\_04.pdf](http://www.bai.go.kr/files/P03B03_20040728_04.pdf)
- 교도소도서관의 교화교육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habilitative Education in Prison Library)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7권, 4호, 199-221쪽
-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학습정보센터 : <http://lib.ghil.com/main/frame.htm>
- THE CLINTON-GORE ADMINISTRATION: FROM DIGITAL DIVIDE TO DIGITAL OPPORTUNITY (February 2, 2000) : <http://user.chollian.net/~gisul/database/00021101.hwp>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는 ‘무식함’입니다.” 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다. ‘무식함’도 큰 장애이지만 그보다 더 큰 장애는 ‘무관심’이 아닐까. 그저 내 한몸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불편에 무관심한 모습. 어쩌면 이 사회 전체에 만연한 하나의 질병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어쩌면 이는 바가 없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에 더욱 무관심해지는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해 준다면, 알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열어 준다면, 모두에게 활짝 열린 도서관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무지로 인한 무관심’이라는 사회적 질환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글 :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